



#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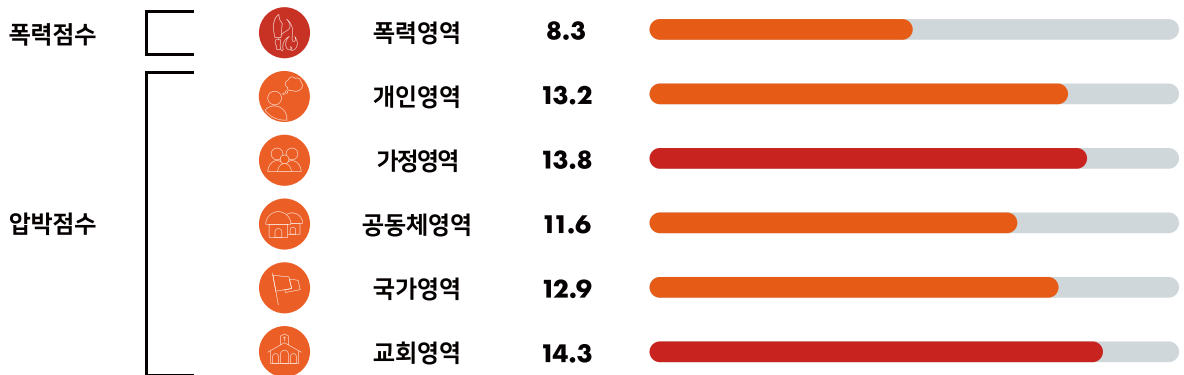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모로코 (MOROCCO)

기독교 박해지수  
**21**위



##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 중요한 발견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기독교인들이 반복적으로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모로코 형법 제220조와 관련이 있다. 이 조항은 '무슬림의 신앙을 흔드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사람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체포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기독교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가들 역시 정부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감시를 받고 있다. 이 법은 겉으로는 포교 행위만을 처벌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상속권을 잃거나 자녀의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다.

# 모로코 (Morocco)

## 국가 정보

지도자 : 모하메드 6세 국왕

인구 : 38,211,000 명

기독교인 수 : 33,000 명<sup>1</sup>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입헌 군주제 기반의 의회제



##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인	33,000	0.1
무슬림	38,084,000	99.7
불가지론자	51,700	0.1
바하이교인	40,900	0.1

출처<sup>2</sup>

모로코는 1956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였다. 그 이후 이 나라는 비교적 안정과 번영을 유지해왔다. 2011년, 아랍의 봄이 모로코에도 영향을 미쳤다. 많은 시위대가 실업에 좌절하며 더 많은 시민 자유를 요구했다. 정부는 헌법 개혁에 관한 국민투표를 조직했고, 이를 통해 모로코는 아랍 세계 대부분을 휩쓴 정치적 격변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특히 북부 리프(Rif) 지역에서는 여전히 불만과 분노가 강하게 남아 있다. 이 지역은 주로 베르베르족(Berb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정부로부터 소외되고 방치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이슬람은 모로코의 공식 국교이며, 인구의 99%가 (대부분 수니파) 무슬림이다. 역사적으로 규모가 컸던 유대인 및 기독교인 공동체는 20세기 중반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독교 단체인 Middle East Concern

은 “법적 조항이 신성모독 및 종교 비방, 비이슬람 종교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종교적 신념 실천을 방해하거나, 무슬림의 신앙을 ‘흔들’거나 무슬림을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기 위한 유인을 제공한 사람은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협회법은 이슬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단체도 금지하고 있으며, 비이슬람 자료의 배포도 제한된다. 무슬림으로 등록된 여성은 비무슬림과 결혼할 수 없다.

모로코 내 기독교인의 대다수는 외국인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다. 외국인을 위한 공인 교회는 주요 도시에 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토착 모로코 기독교인은 이 교회들에 출석할 수 없다.

모로코인 기독교인들은 거의 모두 무슬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개종 사실이 알려질 경우 취업 시장에서의 차별 등 사회적 괴롭힘에 직면한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며, 보안 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받고, 대개는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적대적인 반응을 겪는다.

무슬림 배경의 개종자들을 포함한 모로코의 기독교인들은 소셜 미디어 사용에 신중하다. 이슬람이나 국왕의 종교적 권위를 비판할 경우 체포 및 구금, 사회적 증오를 유발할 수 있다. 대부분의 모로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관련 게시물을 올릴 때 가명을 사용한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인터넷 접속과 소셜 미디어의 확산으

<sup>1</sup> 자료 출처: Zurlo G. A. 및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4년 5월 열람

<sup>2</sup> 자료 출처: Zurlo G. A. 및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4년 5월 열람

로 인해 지리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도 많은 개종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신앙 공동체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농촌 지역의 이슬람 인구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박해 사례는 주로 베르베르족이 거주하는 북동부 지역, 아틀라스 산맥, 그리고 남동부 사막 지대에서 발생한다. 대부분의 개종자들은 가족과 지역 사회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쉬운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농촌 지역의 이슬람 인구는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인권 침해는 베르베르족이 주로 거주하는 북동부, 아틀라스 산맥 및 남동부 사막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개종자들은 가족과 지역 사회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쉬운 도시 지역에 거주합니다.

## 누가 영향을 받는가?

### 해외이주 기독교인 공동체들

해외에서 온 기독교인들은 전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감시를 받거나 추방당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의 해외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오순절교회에 속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

###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이 범주는 WWL의 점수 산정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기독교 개종자들

이슬람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공식 교회에 모일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가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지만, 도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용 수준이 높은 편이다. 개종자들은 일반적으로 감시 대상이 되며, 전도 활동을 할 경우 박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

###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WWL의 점수 산정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 이슬람 억압

이슬람 당국이 부과하는 제한에는 아랍어로 된 기독교 문서(성경 포함)가 발견될 경우 압수되는 것, 특히 전도 활동이 예정된 경우 외국 기독교인과의 협력 금지, 그리고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이 공인된 예배 장소를 확보하는 데 있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어려움 등이 포함된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새로운 신앙으로 인해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압박을 받는다.

### 독재적 편집증

모로코 정부는 특히 개종자와 관련된 활동을 포함한 교회의 움직임을 의심스럽게 바라본다. 모로코 국민은 이슬람, 국왕, 국가에 충성할 것이 기대된다. 과거 당국은 기독교인들에게 국왕에 대한 불충성을 이유로 지목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많은 외국인 기독교인을 추방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 조치의 배경에는 급진적 무슬림 단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사회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 여성

여성에 대한 문화적 기대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여성들을 가사와 집안일에 묶어두고 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여성은 박해에 가장 취약하며, 이는 특히 가정 내에서 두드러진다. 이들은 임의적인 이혼, 자녀에 대한 접근권 제한, 가정 내 감금, 강제 결혼 등의 위험에 놓여 있다. 기독교 신앙 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농촌 지역의 기독교인 여성은 종교적 복장과 의례를 따를 것을 강요받는다. 강간과 성희롱은 가족의 명예와 연결된 금기 주제이기 때문에 종교적 강압의 강력한 수단이 되며, 이는 모로코 내 사하라 이남 출신 이주인 여성들에게도 사용된다.

####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사회적 공동체 및 네트워크 접근 제한
- 자녀 양육권 박탈
- 상속권 또는 재산 소유권 박탈
- 기독교인 배우자와의 결혼에 대한 법적 권리 부정
- 강제적인 종교적 복장 착용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가족에 의한 구금(가택연금)
- 폭력 - 신체적 / 성적 / 언어적

### 남성

기독교로 개종한 남성은 모로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로, 가족의 수치로 여겨진다. 가정 내에서는 가족으로부터의 단절, 경제적 지원 및 상속권 박탈, 아내로부터의 버림 등이 흔히 발생한다. 미혼 남성의 경우 무슬림과의 결혼을 강요받을 수 있으나, 이는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공적 영역에서는 남성이 심문을 당하거나 구타, 투옥되는 경우도 있다. 개종 이후의 반발 강도는 그의 사회적 지위나 정치적 입지에 따라 달라진다. 남성이 대체로 가정의 주된 생계 책임자이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한 압박은 핵심적인 박해 요소이다. 때때로 교육 환경에서의 차별도 발생한다.

####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교육을 통한 차별 및 괴롭힘
- 사업/직장/취업 접근에 대한 경제적 괴롭힘
- 강제 퇴거 - 가정에서의 축출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5	21	74
2024	24	71
2023	29	69
2022	27	69
2021	27	67

모로코의 점수가 74점으로 상승한 주요 원인은 보고된 폭력 점수의 급증 때문이다. WWL 2024에서 5.4점이었던 폭력 점수는 WWL 2025에서 8.3점으로 상승했다. 모로코 내 기독교인의 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젊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건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삶의 5개 영역 전반에 걸친 평균 압박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과 함께 폭력 점수의 급등으로 이어졌다. 폭력 점수 상승의 주요 원인은 가정교회와 관련된 사건 보고 건수가 증가한 데 있다.



##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모로코 경찰에 의한 모로코 기독교인들에 대한 감시와 심문은 WWL 2025 보고 기간 전반에 걸쳐 계속되었다. 다수의 모로코 기독교인들이 공개적으로 체포된 뒤 경찰로부터 활동에 대해 심문을 받았다. 현재까지 기독교인이 기소된 사례는 없지만, 이러한 공개 체포는 위축 효과를 불러일으키며, 가족과 지역 사회 앞에서 모로코 기독교인들에게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감시는 많은 모로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든다.
- 모로코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일부 가정교회는 경찰에 의해 모임을 중단당했다.
- 최소 세 건의 강제 결혼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 외에도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러 명의 개종자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거처를 옮겨야 했다.

월드와치리포트 연도	공격 또는 폐쇄된 교회 및 기독교 건물	납치된 기도교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를 당한 기도교인	구금된 기도교인
2025	7	12	75	17
2024	3	8	54	13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다이내믹스 보고서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라.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인 정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 개인 영역

현지 기독교인과 해외에서 온 기독교인 모두 가까운 가족 외 사람들과 공개적으로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모로코 법에 따라 '무슬림의 신앙을 흔드는 행위'로 기소될 위험이 있다. 개종자가 기독교 상징을 드러내거나 신앙을 언급하는 모습을 본 지역 주민들이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으며, 많은 개종자들이 자신의 새로운 신앙을 타인과 나누는 것을 두려워한다.

### 가족 영역

무슬림 여성과 기독교 남성 간의 결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기독교인의 자녀들은 또래로부터 차별과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 사회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 모로코 기독교인 가정은 동화되거나 이주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압박을 받는다.

### 공동체 영역

기독교는 전통적인 모로코 정체성과는 분리된 것으로 간주되며, 제국주의의 종교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모로코 보안 당국은 현지 및 해외 기독교인의 활동을 감시하며, 전도 가능성을 우려해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어떤 조직도 결성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자녀를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하기 어려운 사회적 압박을 받는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부모 동의 없이 이슬람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국가 영역

정치적으로도 모로코 내 기독교인의 상황은 어렵다. 헌법이 이슬람을 국교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신념을 분명히 드러내는 시민단체나, 모로코

개종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는 정부의 반대를 받는다. 기독교 전도는 금지되어 있으며, 전도 활동을 할 경우 '무슬림의 신앙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교회 영역

기독교 활동이 전도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은 기독교 공동체가 성장하고 활력을 얻는 데 큰 장애가 된다. 외국인 교회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으며, 모로코 국민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관리된다. 정부는 모로코 기독교인이 자체 교회를 세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전도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한 성경의 전시 및 판매 또한 허가하지 않는다.



##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모로코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모로코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규칙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반대에 직면하며, 이혼과 자녀 양육권 상실의 위협을 받는다 (ICCPR 제18조)
- 여성 개종자들은 강제로 결혼을 당하고 신앙을 철회하라는 강요를 받는다 (ICCPR 제23조 3항 및 CEDAW 제16조)
- 기독교인은 신앙에 대해 말하거나 전도 활동을 할 경우 괴롭힘과 폭력에 직면한다 (ICCPR 제18조 및 제19조)
- 기독교인은 공공 부문 취업에 제약을 받고, 민간 부문에서도 차별을 경험한다 (ICCPR 제25조 및 제26조, ICESCR 제6조)



## 모로코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유대교는 헌법상 유일하게 공식 인정받는 소수 종교이며, 유대인들은 가사 문제에 대해 자체적인 종교 법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슬람이 국가의 공식 종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니파(말리키파)가 유일하게 사회적으로 용인된다. 시아파 무슬림, 아흐마디야 무슬림, 바하이교인들은 정부의 제한으로 인해 신앙을 공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무신론자와 무신론 역시 사회와 정부 모두에 의해 억압된다. 최근에는 이슬람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한 몇몇 무신론자와 시민들이 살해 협박을 받고 정부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 오픈도어의 모로코 사역

오픈도어는 모로코의 신자들을 위한 기도 사역을 촉구하고 있다.



- 이 문서의 내용은 매년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의 연구 부서인 월드 와치 리서치(WWR)에서 발행하는 보다 상세한 WWL 박해 동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지만, 출처를 항상 다음과 같이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 Open Doors International.
- 모든 간략한 국가 프로파일은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 웹사이트의 연구 페이지에서 'Advocacy resources' 하에 접근할 수 있으며, WWL 국가별 박해 동향 보고서, 국가별 배경 정보, WWL 방법론 최신 업데이트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오픈 도어 분석 웹사이트(비밀번호: freedom)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WWL 2025 보고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문서의 많은 사진은 설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